

극지해소식

No.149

31 May

www.kmi.re.kr

책임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작성 김주형, 김지영, 박예나, 엄단비, 정다현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락처 정다현 051)797-4747 (dhj82@kmi.re.kr)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 북극이사회 | 북극이사회, 해운 데이터로 최근 10년간 북극 운항선박 트렌드 분석 ... 2
- EU/국제기구 | EU,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 관련 일본 MOL 선박 3척 제재 ... 5
- NATO/국제기구 | 나토, 합동항공작전센터(CAOC) 노르웨이 북부 보도에 설립 ... 6

북극권 국가 정책

- 러시아 | 러시아, 북극 개발 전략 대폭 개정 추진 ... 7
- 러시아 | 내년부터 북극 지역 임대주택 공급 확대 ... 8
- 노르웨이 | 노르웨이, 북극이사회 의장직 그란드에 이양·우크라 전쟁 트럼프 발언에도 협업체 유지 ... 9
- 덴마크 | 그란드 외무장관 "우리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덴마크, 북극이사회 의장국 공식 인수 ... 11
- 미국 |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로 미국 극지과학 연구 붕괴 위기 직면 ... 13
- 캐나다 | 캐나다 군, 북극 상시 주둔 체제 추진 ... 15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 러시아 | 러시아, 북극 개발 가속화로 2035년까지 세금 수입 13조 루블 기대 ... 16
- 러시아 | 가스프롬네프트, 야말 지역 영구 동토층 변화 예측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착수 ... 17
- 러시아 | 러, 무르만스크 리툼 광산 개발 본격화 및 친환경 에너지 도입 검토 ... 18
- 러시아 | 러, 북극항로 기반 구축, 추코트카 페벡-빌리비노 간 상시 도로 건설 ... 19
- 미국 | 미국, 알래스카에서 아시아 고위당국자 초청 LNG 개발 프로젝트 논의 ... 20
- 덴마크 | 덴마크 국영투자기금(EIFO), 미국 세일드론에 6,000만 달러 투자 ... 21
- 덴마크 | 핀란드 쇄빙선 산업 재편... 아커 아크틱, 블루테크 인수로 북미 시장 진출 ... 22

유럽 국가 정책

- 일본 | 일본, 쇄빙 연구선 그란드에 파견... 중 러의 북극해 정보독점 우려 대응조치 ... 23

남극 소식

- 얼어붙는 미국의 남극 영향력, 다가오는 지정학적 공백 ... 25
- 극지연구소, 남극 심해에서 초대형 화살벌레와 열수 광석 첫 채집 ... 27

극지의 창(窓)

- 그란드 외교·안보 전략,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지 말라" ... 29

북극과 사람

- 그위친 원주민에 대한 이해: 역사, 문화, 거버넌스 ... 35

극지 행사 소식

-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 친환경 북극항로 거점으로서의 도약, 부산항의 기회와 과제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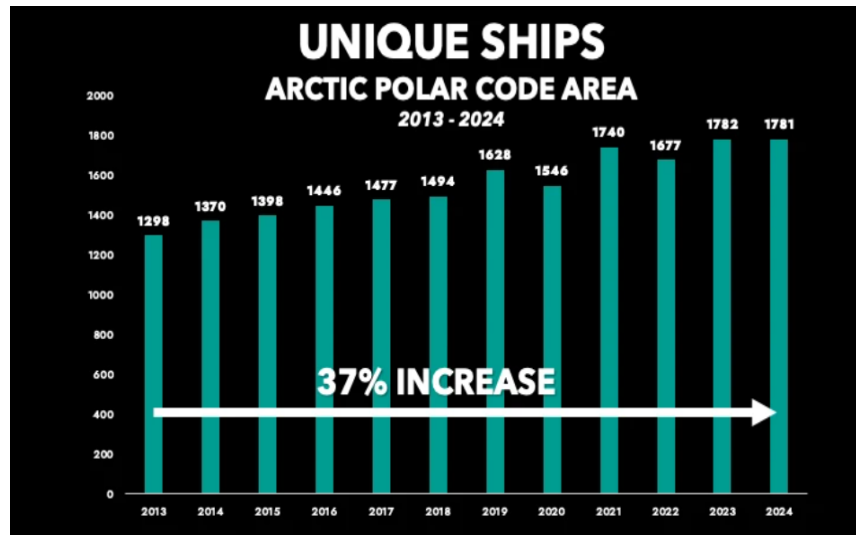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본 소식지는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북극이사회, 해운 데이터로 최근 10년간 북극선박 운항 트렌드 분석 (2025. 5. 12.)



글 정다현 dhj82@kmi.re.kr

<https://arctic-council.org/news/arctic-shipping-what-trends-can-tell-us/>

그림: 2013년(1,298척)부터 2024년(1,781척)까지 북극 폴라 코드 구역에 진입한 선박이 37%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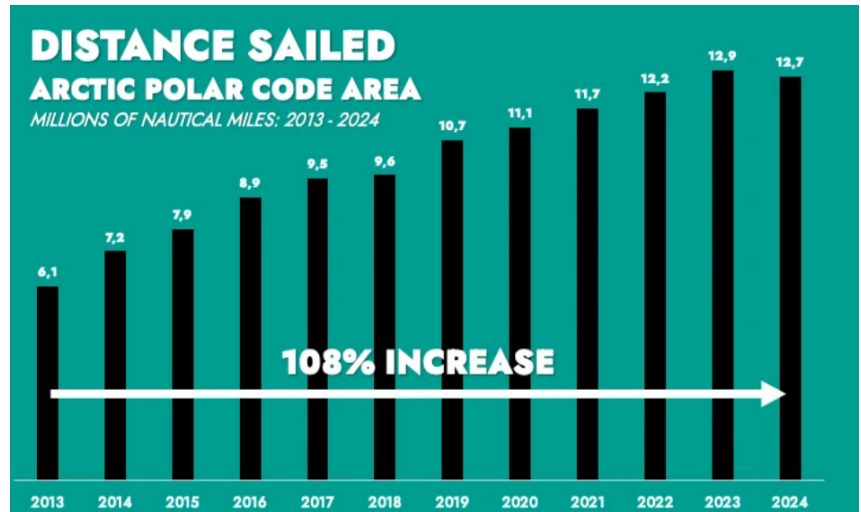
(출처: <https://arctic-council.org/news/arctic-shipping-what-trends-can-tell-us/>)

기후 변화로 북극해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중 항해 가능 기간이 길어졌으며, 지금까지 접근이 어려웠던 해역에도 선박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북극 지역의 항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북극은 철광석·천연가스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높은 원자재 가격과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북극 운항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북극이사회 산하 북극 해양환경 보호(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PAME) 워킹그룹은 북극 해운활동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PAME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의한 폴라 코드(Polar Code) 구역을 기준으로 북극 선박 운항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5년 1월 발표된 북극 해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북극 Polar Code 구역에 진입한 선박 척수는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한 선박’ 통계 기준은 동일 선박이 연중 여러 차례 진입하더라도, ‘한 척’으로만 집계된다.

특히 북극 해빙이 가장 적은 9월에는 1,064척이 진입한 반면, 2월에는 404척에 그치는 등 계절별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2013년 610만 해리였던 선박들의 총 항해 거리는 2024년에는 1,270만 해리로 2배 이상(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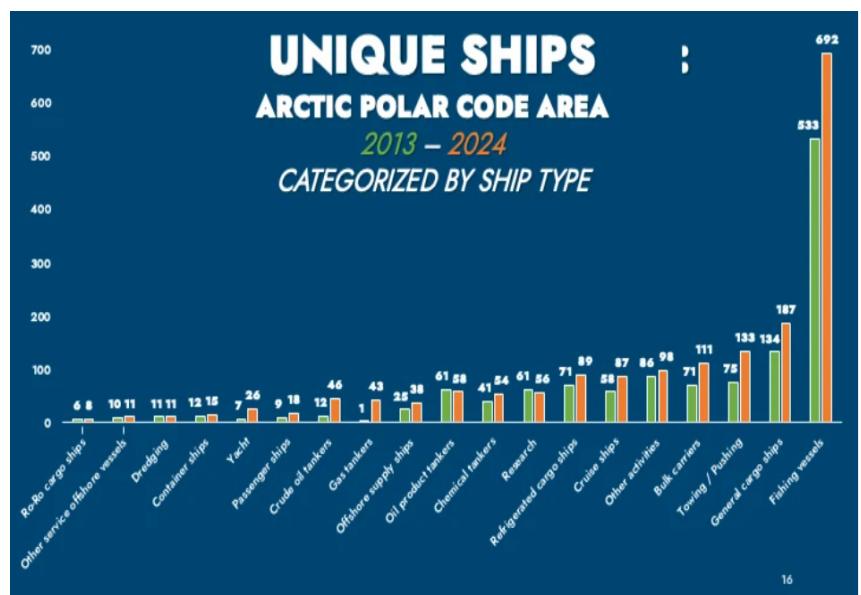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PAME는 북극 운항 선박의 유형 변화를 분석하였다. 북극 Polar Code 구역에서 가장 많이 운항한 선박은 어선(fishing vessels)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일반 화물선(general cargo ships)의 활동 비중이 높았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분의 선박 유형에서 운항이 증가했지만, 유조선(oil tankers)과 연구선(research vessels)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그림: 2013년 610만 해리, 2024년에는 1,270만 해리로 선박들의 총 항해 거리가 2배 이상(108%)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
(출처: <https://arctic-council.org/news/arctic-shipping-what-trends-can-tel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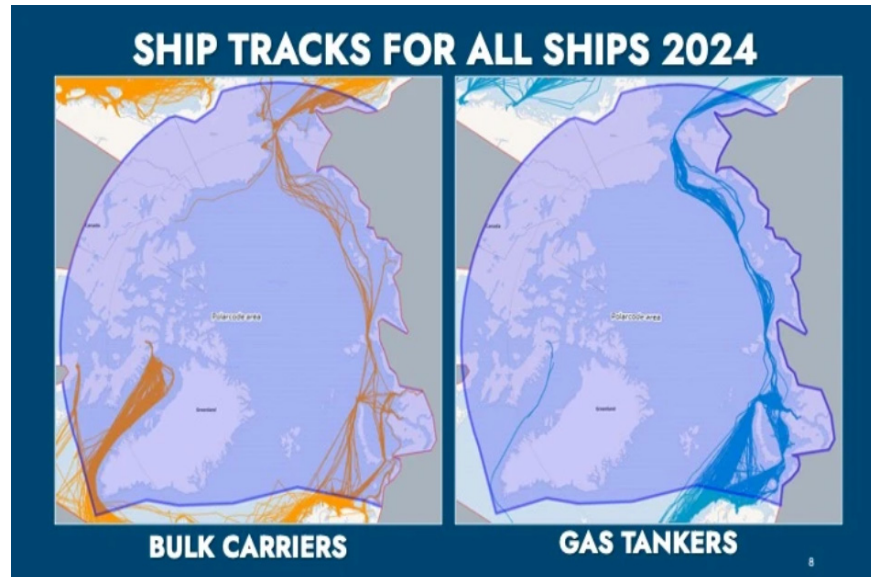
아래 그림: 북극 운항 선박 유형별 변화 나타내는 그래프
(출처: <https://arctic-council.org/news/arctic-shipping-what-trends-can-tell-us/>)



다음으로는 북극 운송이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PAME의 히잘티 히레인손(HjalTI Hreinsson) 프로젝트 매니저는 북극 해운 증가의 배경에 대해 자원 채굴 프로젝트 확대가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그림: 2024년 벌크선/가스운반선의 북극해 선박 항적 비교
(출처: <https://arctic-council.org/news/arctic-shipping-what-trends-can-tel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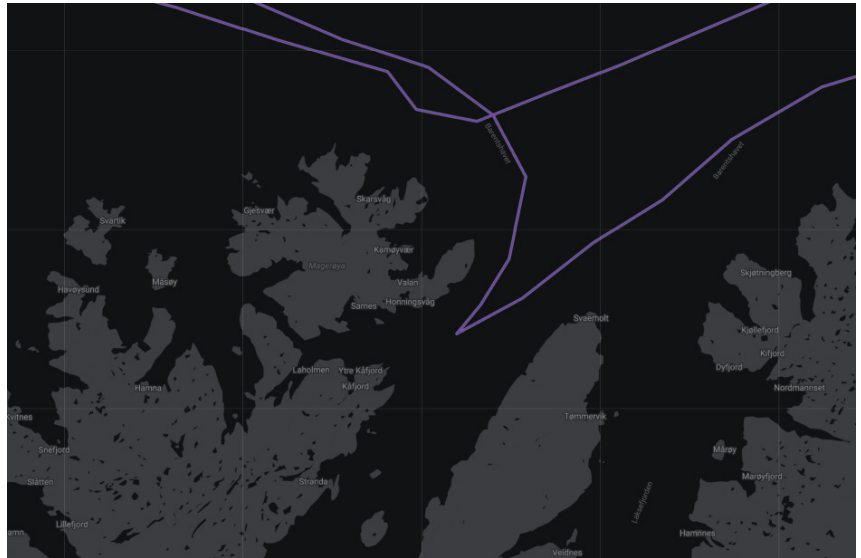


그는 캐나다 누나부트 매리 리버(Mary River) 광산 프로젝트와 러시아 북극 지역의 야말 LNG(Yamal LNG) 프로젝트를 대표 사례로 들면서 이 사업에 필요한 벌크선(bulk carriers)과 가스운반선(gas tankers) 운항이 늘어난 것이 선박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이전에는 가스운반선의 북극항로 운항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반 화물선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는 이는 북극이 자원 채굴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경로로도 본격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해운 증가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안전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PAME는 북극 선박 운항 데이터(Arctic Ship Traffic Data, ASTD)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박 유형별 항적, ▲북극 내 450개 항구 및 지역사회 대상 운항 현황, ▲선박별 배출가스, ▲특정 지역 내 운항 패턴과 연료 소비량 등 벌크선·여객선 등 선종별 맞춤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AME는 '북극 해운 모범 사례 포럼(Arctic Shipping Best Practice Information Forum)'과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 이행 관련 인식 제고에 대해 언급하며, 어선 안전 규제 강화, 극지 생태계 보호, 북극 원주민의 삶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
국제기구EU,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 관련 일본 MOL 선박 3척 제재
(2025. 5. 22.)

글 정다현 dhj82@kmi.re.kr

<https://www.highnorthnews.com/en/eu-sanctions-russian-shadow-fleet-vessels-routinely-passing-through-norwegian-waters-stopping>

<https://gcaptain.com/eu-sanctions-three-mol-gas-carriers-associated-with-russias-yamal-lng/>

<https://www.marineinsight.com/shipping-news/eu-sanctions-3-japanese-lng-carriers-for-shipping-gas-from-russian-facility/>

그림: 2025년 5월 14일 호닝스버그 외곽 해역에 정박한 North Light
(출처: <https://www.highnorthnews.com/en/eu-sanctions-russian-shadow-fleet-vessels-routinely-passing-through-norwegian-waters-stopping>)

유럽연합(EU)은 5월 20일, 러시아 북극 지역 야말 LNG 프로젝트(Yamal LNG)와 관련된 'North' 시리즈 신규 LNG 운반선 3척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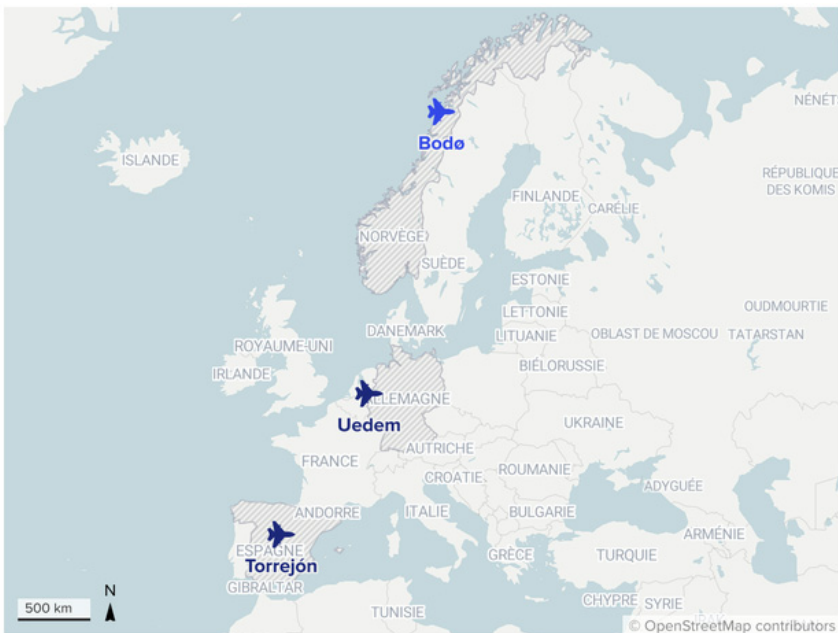
이번 조치는 EU의 제17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Brussels' 17th sanctions package)의 일환이다. 제재 대상 선박은 17만 4,000cbm급 LNG선인 ▲North Light, ▲North Moon, ▲North Ocean으로 러시아 최대 민간 천연가스 생산 기업인 노바텍(Novatek)이 운영하는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를 유럽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EU는 밝혔다.

해당 선박들은 라이베리아 국적이며, 독일의 리버티 블루 선박관리회사(Liberty Blue Shipmanagement) 소속이다. 그러나 이 선박들은 일본 해운사 MOL(Mitsui O.S.K. Lines)이 운항 관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공식 문서에 따르면, 제재 근거는 해당 선박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MOL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U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에 관여한 비 러시아 국적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 첫 사례이다. 해당 선박들은 EU 항만 입항이 금지되고, EU 내 자산도 동결된다.

NATO/
국제기구

NATO, 합동항공작전센터(CAOC)노르웨이 북부 보되(Bodø)에 설립
(2025. 5. 21.)



글 정다현 dhj82@kmi.re.kr

<https://www.brusselstimes.com/1589336/nato-to-install-an-air-operations-command-in-the-norwegian-arctic>

<https://www.thebarentsobserver.com/security/natos-new-air-command-center-will-be-built-in-bodo/430149>

그림: 나토는 노르웨이 북극 마을 보되에 합동항공작전센터(CAOC)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NATO는 독일 위덴(Uedem)과 스페인 토레혼(Torrejón)에 각각 CAOC를 운영 중임.

(출처: <https://www.brusselstimes.com/1589336/nato-to-install-an-air-operations-command-in-the-norwegian-arctic>)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노르웨이 북부 보되(Bodø)에 합동항공작전센터(Combined Air Operations Centre, CAOC)를 신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방공·항공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NATO의 방위 구조 재편작업의 하나로, 노르웨이 북극권에서 NATO의 CAOC를 설립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노르웨이 국방부는 설립 후보지로 보되와 리게(Rygge)를 검토해왔다. 토레 산드비크(Tore O. Sandvik) 국방장관은 “두 지역 모두 충분한 전략적·인프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보되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었으며, NATO 및 노르웨이 당국은 세부 설계 및 구축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NATO는 독일 위덴(Uedem)과 스페인 토레혼(Torrejón)에 각각 CAOC를 운영 중이다. 신설되는 보되 CAOC는 세 번째 항공작전 거점으로, NATO 연합군 공군작전의 지휘 통제 체계에 통합되어 북극 및 북대서양 항공작전 조율, 레이더 감시, 비상 대응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한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김지영 jijeong111@kmi.re.kr

https://nia14.ru/news/novosti-arktika/6076.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

러시아, 북극 개발 전략 대폭 개정 추진 (2025. 5. 23.)

러시아 정부가 ‘북극 개발 전략 2035’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를 내다보는 국가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 개정안은 동부국가계획청(Vostokgosplan)이 연방 정부 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을 반영해 작성한 것으로, 현재 극동개발부(Minvostokrazvitiya)를 통해 대통령령 초안이 정부에 제출된 상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국제 북극 포럼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장기 국가정책과 전략을 조정하는 별도의 작업과도 병행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전략 문서는 이전보다 더욱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북극 개발 전략을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일관되게 연결하여 전략 간 중복을 줄이고 시너지를 높이는 한편, 새롭게 지정된 북극 영토들도 전략에 포함되어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 개발은 더 이상 독립적인 목표가 아닌, 국제 경제와 외교 정세의 흐름을 고려한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50 비전(Vision 2050)’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제시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인프라의 적응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북극 지역이 직면한 리스크와 도전 요소에 대한 평가도 최신화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북극 전략 1단계의 실행 성과도 함께 점검되었다. 총 287개의 과제 중 대부분이 이행되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북극 헥타르’ 프로그램을 통해 약 9,000명이 무상으로 토지를 분양받았고, 약 1만 3,000가구가 2% 저금리의 북극 전용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이용하였다. 또한 1,000건이 넘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로 추진되었다. 북극 관련 입법도 활발히 진행되어 16건의 연방법과 7건의 대통령령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북극 개발 핵심 거점으로 설정된 16개 정착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그중에는 노르웨이령 슈피츠베르겐에 위치한 러시아 정착지까지 포함되었다. 아동 복지 차원에서는 ‘북극의 아이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북극권 아동들이 남부 지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내년부터 북극지역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25. 5. 20.)

러시아 크렘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연방관구(Far Eastern Federal District)에서 시행 중인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북극 지역의 거점 정착지(опорные населённые пункты)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3월 27일 푸틴 대통령이 무르만스크를 방문한 뒤 내려진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시에 대한 이행 책임자는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로 지정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극동연방관구에서 시행 중인 ‘저렴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러시아 북극지역의 거점 정착지에도 적용한다.”

해당 임대주택 프로그램은 2022년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후 도입된 것으로, 극동 지역 내에 최소 1만 세대의 저렴한 임대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수혜 대상은 청년 전문가, 대학생, 주요 전문 인력 등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인재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인력 유치 및 정착 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북극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푸틴 대통령은 2035년까지를 목표로 북극지역 내 노후 주택 정비·이전 계획 수립도 정부에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 연방 예산안과 2027~2028년 계획 예산안에 북극 지역의 유휴 주택 철거 사업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는 주택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내 거주 환경 개선, 예산 자원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 김지영 jyeong111@kmi.re.kr

https://www.ttelegraf.ru/news/s-1-yarnvarya-2026-goda-programma-dostupnogo-arendnogo-zhilya-zarabotaet-v-arktike/?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

북극권
국가 정책

글 엄단비 dbu@kmi.re.kr

www.theguardian.com/world/2025/may/12/norway-arctic-council-leadership-ukraine-trump-greenland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 장관이 북극이사회의 지난 2년에 대한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토마스 트라스 달, 리차우 스칸픽스, AFP)
(출처: www.theguardian.com/world/2025/may/12/norway-arctic-council-leadership-ukraine-trump-greenland)

노르웨이, 북극이사회 의장직 그린란드에 이양...우크라 전쟁·트럼프 발언에도 협의체 유지 (2025. 5. 12.)



노르웨이가 북극 지역 8개국 정부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 의장직을 마쳤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지난 2년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제 병합 발언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당초 의장국은 덴마크가 맡을 계획이었으나, 코펜하겐이 과거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차원에서 그린란드에 의장국 역할을 넘기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제 병합 주장으로 양측 긴장이 고조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에이데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 국제 정세가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이사회를 유지하고 회원국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의장국 기간 동안 회원국 간 갈등이 세계적 관심을 받으며 외부로 드러났고, 특히 러우 전쟁과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과의 긴장이 두드러졌지만, 이사회는 해체되지 않고 활동을 이어 나갔다.

북극권 국가 정책



에이데 장관은 해양 문제, 기후위기, 북극 거주민 문제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한 진전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1996년 출범한 북극이사회가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실무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협의체를 지켜냈다. 다른 국제 협력체들과 달리 이탈한 국가는 없었고, 활동을 중단하자는 제안도 없었다. 아주 천천히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2년간 북극이사회가 직면할 도전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린란드 점령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북극 국가들 간의 긴장, 미·러 관계 변화, 여기에 중국의 북극 진출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데 장관은 북극이사회가 오랫동안 남반구 정치와는 거리를 유지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극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체의 통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극 연안국은 8개국뿐이다. 이들 모두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북극이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협의체가 분열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근 들어 전면 재정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여전히 바렌츠해에서의 실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주 자국 역사상 첫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현 상황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에이데 장관은 당장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러시아 콜라반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만큼 대비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극에서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동서 간 더 큰 국제적 충돌이 생긴다면 북극은 핵심 전략지대가 될 수 있다"며 "러시아와 북미 사이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이동할 최단 경로가 바로 북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덴마크

글 엄단비 dbu@kmi.re.kr

www.highnorthnews.com/en/arctic-council-chairship-handover-we-must-move-forward-courage-says-greenlandic-foreign-minister

노르웨이 외무장관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Espen Barth Eide)와 그린란드 외무장관 비비안 모츠펠트의 모습(Vivian Motzfeldt, 사진 왼쪽) 사진: 아스트리 에드바르센 Astri Edvardsen (출처: www.highnorthnews.com/en/arctic-council-chairship-handover-we-must-move-forward-courage-says-greenlandic-foreign-minister)

그린란드 외무장관 “우리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 덴마크, 북극이사회 의장국 공식 인수 (2025. 5. 15.)



덴마크가 노르웨이에서 북극이사회 의장국 직을 넘겨받고, 앞으로 2년 동안 이사회를 이끌게 됐다. 이번 의장국은 덴마크 본토뿐 아니라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가 함께 대표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15일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열린 이양식에서는 비비안 모츠펠트(Vivian Motzfeldt)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의장직을 공식적으로 인수했다. 그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시대 속에서 북극이사회는 협력과 대화를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용기와 개방성, 그리고 평화와 파트너십에 대한 진정성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양식에 참석한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Espen Barth Eide)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이처럼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북극이사회가 단결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북극 국가들과 원주민들이 함께하는 협력 포럼이 유지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인 북극 지역인 그린란드가 의장국 역할을 맡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식에 앞서 열린 북극이사회 제14차 회의는 대사급 대표단과 6개 원주민 상설 참여기구가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8개 회원국과 상설 참여기구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공동성명에서는 북극이사회가 지난 30여 년간 북극 협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평화와 안정,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급변하는 북극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그 밖에도 공동성명에는 북극 원주민의 권리와 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의 전통 지식이 북극 변화 대응에 핵심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후변화와 관련해 ‘인간 유발’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에이데 장관은 공동성명에 대해 “기후와 환경, 그리고 원주민 문제 등 핵심 의제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이 함께 참여한 점이 중요하며, 오늘 회의는 북극이사회의 연대와 공동 의제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국 이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발언, 그리고 기후 연구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인한 북극 협력 위기 속에서 이뤄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모츠펠트 장관은 “북극이사회는 여전히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며, 북극은 가능성과 취약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며 “환경과 지역 주민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극은 갈등이 아닌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원주민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원주민의 지식과 관점이 북극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며 “과학 연구와 함께 원주민 전통 지식을 동등하게 이사회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미 의회 실예 카리네 모우트카(Silje Karine Moutka) 의장도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원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들은 원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란드, 페로제도, 덴마크가 뿌리 내린 토지와 사람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이사회를 이끌기를 기대한다”며 “원주민이 주도하는 북극은 더 강하다”고 말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5/15/blog-trumps-cuts-threaten-us-polar-science-after-decades-of-data-collection/>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로 미국 극지 과학연구 붕괴 위기 직면 (2025. 5. 15.)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간 미국 과학계가 쌓아온 극지 연구 데이터를 방기하거나 파괴하는 조치를 하면서 미국 극지 과학계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극지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정밀한 관측과 방대한 현장 연구로 발전해 왔다. 연구자들은 북극 빙상 위성 관측, 쇄빙선 탐사, 그린란드 빙상 강 수질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십 년간 월별 해빙 두께와 고해상도 북극 지형도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성과는 전 세계 과학계와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산하 북극 데이터 센터(Arctic Data Center) 등의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이러한 연구 활동이 위기에 처했다. 2024년 기준 NSF 극지 프로그램 사무국의 예산은 5억 달러 이상에 달했지만, 2025년에는 예산의 55%가 삭감될 예정이다.

극지 과학 데이터 생산과 유지보수를 주도하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도 25% 예산삭감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해빙·강설 관측, 북극해 빙하 사진, 세계 빙하 목록 등 NOAA가 수십 년간 축적한 주요 자료들을 더 이상 업데이트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최근 NOAA는 “세계적 수준의 해빙 지수·빙설 자료·빙하 데이터베이스 등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접근 가능하지만 앞으로 보완·갱신·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극지공간센터(Polar Geospatial Center)도 북극과 남극의 고해상도 디지털 고도 모델(ArcticDEM, Reference Elevation Model of Antarctica) 최신판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당분간은 마지막 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기후 과학자 루스 모트럼(Ruth Mottram) 박사는 이 같은 예산삭감을 “노골적인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 자신을 포함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센터의 북극 데이터 활용법을 배우고, 국제 협력을 넓혀왔다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삭감은 극지 과학자뿐 아니라 알래스카 주민, 어민, 군사 기지에도 직접적 피해를 준다. 해빙·빙하 자료가 사라지면 선박 항해 안전과 재난 대응, 기후 적응 계획 수립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기지의 영구동토층 해빙 문제도 방치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2022년 그린란드 피투피크 미군기지(Pituffik Space Force Base)에서 해빙으로 활주로가 손상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극지 과학의 위기는 국제 협력의 단절과도 맞물려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극권 과학 협력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연구자들은 이미 러시아 관측자료의 공백을 감내해 왔다. 여기에 미국 극지 연구마저 정부 지원이 끊기면 북극 연구의 공백과 편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북극권의 토착 지식 전승이 식민지화와 자본주의에 의해 위축된 역사처럼, 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지식·관측을 지키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구자들은 기존 데이터의 복사본을 빠르게 확보하고, 유럽·아시아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할 방안을 찾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를 쌓는 것 보다 기존 자료를 지키는 일이 더욱 긴급해진 셈이다.

이제 극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더 연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쌓아온 데이터를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미국 극지 과학계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www.cbc.ca/news/politics/canada-arctic-troops-expansion-exercise-1.7535095>

캐나다군, 북극 상시 주둔 체제 추진 (2025. 5. 15.)

캐나다 군이 올해부터 북극 지역에서 연간 최대 10개월까지 다양한 부대를 파견하며 군사훈련을 확대한다. 캐나다 군의 대표적 북극 훈련인 나눅 작전(Operation Nanook)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사실상 북극 지역에서 상시 주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티브 보뱅(Steve Boivin) 중장은 캐나다는 사실상 북극에서 상시적 주둔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연간 5~6개월 동안의 훈련 기간을 10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첫 확장 훈련인 나눅-누날리웃 작전(Operation Nanook-Nunavut)이 노스웨스트 준주 이누빅(Inuvik)과 매켄지강 삼각주 지역에서 실시되어, 캐나다 군 450명과 미국·영국·벨기에·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군 110여 명이 참가했다. 보뱅 중장은 나토 동맹국의 합동 훈련은 필요할 때 진행하겠지만, 본질은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북극에서 존재감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 북극·지정학 전문가 마이클 바이어스(Michael Byers) 박사는 이번 군사훈련 확장이 캐나다 주권을 대내외에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맹국들과의 훈련 확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외교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덴마크군의 대규모 참여 등도 거론되며, 이는 그린란드까지 아우르는 훈련 구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에드 아놀드(Ed Arnold)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캐나다·그린란드 합병 발언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공개적 침묵이 캐나다와 덴마크에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토의 북극 역할 확대가 캐나다와 유럽 내 나토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국방부 예산 4억 2,0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북극 안보를 국가 우선순위로 삼고, 전담 장관을 신설했다.

북극 훈련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일정은 지난해 9월부터 수립되어 왔으며, 매년 4회의 훈련을 7회로 늘릴 예정이다. 바이어스는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미군과 연안 경비대를 정기적으로 초청해 캐나다 주권을 인정받는 외교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훈련의 확대와 동맹국 협력강화는 북극 안보와 주권 수호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캐나다의 본격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김지영 jjeong111@kmi.re.kr

https://t.me/government_rus/20905

러시아 북극 개발 가속화로 2035년까지 세금 수입 13조 루블 기대 (2025. 5. 21.)

유리 트루트네프(Yury Trutnev) 러시아 연방 부총리 및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는 최근 국가두마에서 러시아 북극 지역의 개발 현황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현재 러시아 북극지역에서 자원 채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시설이 건설되고 있고, 새로운 원자력 쇄빙선이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노릴스크, 나리안마르, 아나디리, 살레하르트 등 북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극 지역 발전에 있어 투자 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북극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별경제구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총 2조 루블 이상의 투자 규모를 가진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국가 프로젝트와 대통령 특별 보조금 사업을 통해 북극 지역에 총 60개 이상의 병원과 진료소, 48개의 학교와 유치원, 17개의 체육관이 새로 건설됐다고 보고했다. 무르만스크와 아르한겔스크에는 새로운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약 3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주거 공간이 건설되어 총 5만 7,000 가구가 새롭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북극항로의 발전이 노바텍, 가스프롬, 노르니켈, 루코일 등 대형 기업들의 사업계획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2035년까지 총 13조 루블에 이르는 새로운 세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과제로는 북극권 16개 거점 도시의 마스터플랜 실행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은 도로, 공항, 상하수도, 보건의료, 문화, 체육, 여가 등 600개 이상의 인프라를 신설하거나 개보수할 계획인데, 이 같은 사업에 국가 프로젝트 예산으로 1,060억 루블이 편성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북극과 극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jiyeong111@kmi.re.kr

https://itek.ru/news/gazprom-neft-sozdast-cifrovuyu-model-vechnoj-merzloty-dlya-razrabotki-mestorozhdenij-v-arktike/?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

가스프롬네프트, 야말 지역 영구동토층 변화 예측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착수
(2025. 5. 22.)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네프트(Gazprom Neft)가 야말반도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영구동토층(Криолитозона, Cryolithozone)의 상태를 예측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에 착수했다.

‘크리올리토조나(영구동토권)’는 평균 연간 기온이 영하인 지각의 상부 지역으로,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65%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상태는 도로, 건물, 산업 시설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스프롬네프트는 이 시스템을 통해 영구동토의 변화 예측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북극 지역의 인프라 개발 및 자원 개발의 안정성과 환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에두아르드 니콜라이추크(Eduard Nikolaychuk) ‘Gazpromneft-Zapolyarye’사의 극지 지역 자원개발 및 운영센터장은 “새로운 영구동토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후 및 지질 조건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적응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극북 지역 프로젝트 개발에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디지털 시스템은 Gazpromneft-Zapolyarye 소속의 다양한 전문가(엔지니어, 지질학자, 지리학자, 지구동토학자, 설계자, 기획 전문가 등)로 구성된 팀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수년간의 지반 공학적 모니터링, 공학 및 과학 연구, 다중분광 위성탐사 자료, 기상 및 지구물리 정보, 지형·지질 데이터 등 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첫 번째 적용 지역은 야말반도의 서부로, 현재 이곳에서는 가스프롬네프트가 대규모 유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후에는 이 시스템을 가스프롬네프트가 극지방에서 활동 중인 모든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가스프롬네프트 채굴 부서 책임자인 세르게이 독토르(Sergey Doktor)는 “지리정보 모델은 유전뿐 아니라 그 주변의 광범위한 동토 지역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연구 결과는 자원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채굴뿐 아니라,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무르만스크 리튬 광산 개발 본격화 및 환경 에너지 도입 검토 (2025. 5. 23.)

러시아 북서부 무르만스크주에 위치한 콜모제르스코예(Kolmozerskoye) 리튬 광산에서 광산-선광 복합 단지(GOK, горно-обогат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건설이 2026년 중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동은 2028년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대표 니켈·금속 기업 노르 니켈(Norilsk Nickel)과 국영 원자력 공기업 로사툼(Rosatom)이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 폴라 리튬(Polar Lithium)이 추진하고 있다.

이고리 데미도프(Igor Demidov) 폴라 리튬 대표는 “2026년 중반 착공 예정이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소 두 개의 핵심 시설(광산 채굴장과 1단계 선광 공장)이 단계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선광 공장, 기반 인프라, 채굴장에 대한 설계 및 기술 문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 프로젝트에 대체 에너지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미도프는 “풍력 발전이 유력한 대안이며, 로사툼 산하 풍력 전문 계열사인 노바윈드(Novawind)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바윈드는 러시아 내 풍력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으로, 자매회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풍력 설비 구축에는 복수의 시공업체 간 경쟁이 존재하며, 폴라 리튬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전력 단가가 가장 낮은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폴라 리튬은 러시아 리튬 산업의 전략적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청정에너지와 광물 자원 개발의 융합이라는 흐름 속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전환과 미래 산업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기여를 시작하고 있다.

글 김지영 jjeong111@kmi.re.kr

<https://tass.ru/ekonomika/24025395>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jijeong111@kmi.re.kr

https://www.rzd-partner.ru/logistics/news/stroitelstvo-dorogi-mezhdu-pevekom-i-bilibino-podderzhit-razvitie-sevmorputi-i-arkticheskikh-territoriy/?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

러, 북극항로 기반 구축, 추코트카 페벡-빌리비노 간 상시 도로 건설 (2025. 5. 23.)

러시아 국영 원자력공사 로사톰(Rosatom)에 따르면, 북극항로 인프라를 강화하고 북극 지역 정착지의 종합 개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추코트카 자치구 페벡(Pevék)과 빌리비노(Bilibino)를 연결하는 연중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도로가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 5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콜리마(Kolyma)-옴숙찬(Omsukchan)-오몰론(Omolon)-아나디르(Anadyr)를 잇는 주요 도로 구간뿐 아니라 빌리비노, 콤소몰스키(Komsomolsky), 에그베키노트(Egvekinot)에 접근 가능한 도로까지 포함하여 건설될 계획이다.

로사톰의 지역 협력 담당 부서 이반 크라이네프(Ivan Krainev) 대변인은 “페벡과 빌리비노를 연결하는 상시 도로는 두 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교통 축은 두 도시 간의 행정적·기능적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북극항로를 트랜스아틱(Transarctic) 교통 회랑의 일부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도로가 완공되면 추코트카 자치구 내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 사이의 물류 연결성이 개선되고, 에너지 및 광산 개발 관련 인프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페벡은 향후 수십 년 내에 복합 물류 허브(multimodal logistics hub)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항만 능력 확장, 부유식 원자력 발전설비 현대화, 공항 기능 강화가 진행 중이다. 반면 빌리비노는 광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할 예정으로, 채굴 관련 기술 클러스터와 프로젝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페벡과 빌리비노는 모두 외딴 북극 도시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항공이나 겨울철 임시도로(겨울에만 얼음길로 운영)뿐이며,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이번 도로 건설은 지역 물류체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북극항로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미국

미국, 알래스카에서 아시아 고위당국자 초청 LNG 개발 프로젝트 논의 (2025. 5. 23.)

미국 정부가 일본, 한국, 대만의 고위당국자들을 알래스카로 초청해 대규모 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내무부 더그 버검(Doug Burgum) 장관과 에너지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장관은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초청은 아시아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에너지 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회의는 알래스카 북극권의 가스전을 활용해 440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파이프라인은 알래스카를 가로질러 약 1,300km를 연결해 가스를 액화 형태로 아시아 고객들에게 수출하는 구조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いしばしげる) 총리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사업성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한다. 무토 요지(むとうようじ) 경제산업성 대신도 의회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리나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초청에 대해 시기가 까다롭다며, 대선 일정과 충돌을 우려했다. 대만 국영 CPC社는 3월 비구속적 투자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만 경제부는 전했다.

한편, 태국도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트럼프 행정부와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매년 수백만 톤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태국 에너지부 프라서트 신숙프라서트(Prasert Sinsukprasert) 차관은 최근 알래스카에 방문하여 LNG 프로젝트에 참여한 현지 당국 및 기업들과 잠재적 공동개발과 수입 기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알래스카 가스전 외에도 북극 지역의 에너지 협력 전반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버검과 라이트 장관은 6월 3일~5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Sustainable Energy Conference)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덴마크

글 엄단비 dbu@kmi.re.kr

arcticstartup.com/saildrone-raises-60-million

덴마크 국영투자기금(EIFO), 세일드론에 6,000만 달러 투자
(2025. 5. 15.)

해양 감시용 장시간 운용 무인수상정(USV)을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세일드론(Saildrone)이 6,000만 달러(약 82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는 덴마크의 국영 수출투자기금(Export and Investment Fund of Denmark, EIFO)가 주도했으며, 렉스 캐피털(Lux Capital), 워싱턴 하버 파트너스(Washington Harbor Partners), 크로울리(Crowley), 아카데미 시큐리티(Academy Securities) 등 기존 투자자와 함께 파인가로브(Pinegrove), BZH 캐피털(BZH Capital) 등이 새로 참여했다. 세일드론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유럽 본사를 덴마크 코펜하겐에 설립하고, 북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덴마크군과 협력해 무인 수상정 4대를 덴마크 해역에 배치할 예정이며, 이는 무인 시스템을 지역 안보 인프라에 통합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발트해, 북해, 유럽 북극해 등에서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해양 감시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일드론이 개발한 고내구성 무인 수상정은 첨단 센서와 자사 독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해수면 위와 수중의 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다.

리처드 젠킨스 세일드론 최고경영자는 “EIFO와 덴마크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일드론의 유럽 본사를 코펜하겐에 설립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는 지정학적으로 북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본사와 운영 허브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덴마크군과 협력해 세일드론의 해양 정보 서비스를 여러 나토 회원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발트해와 북해의 핵심 인프라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IFO의 페더 룬드퀴스트 최고경영자는 “세일드론에 투자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덴마크가 유럽 활동의 중심지로 선택된 것 또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기술은 덴마크와 유럽 전체의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세일드론의 시스템은 북극 지역 감시 및 덴마크 해역 위기 대응에 기존 순찰선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세일드론은 덴마크군과의 계약에 따라 올해 6월에 ‘세일드론 보이저(Saildrone Voyager)’ 4척을 발트해에 배치할 계획이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엄단비 dbu@kmi.re.kr

<https://www.workboat.com/aker-arctic-acquires-bluetech-finland-to-expand-icebreaker-design-capacity>

핀란드 쇄빙선 산업 재편...아커 아틱, 블루테크 인수로 북미 시장 진출 가속 (2025. 5. 21.)

핀란드의 쇄빙선 설계 전문 기업인 아커 아틱 테크놀로지(Aker Arctic Technology Inc.)와 블루테크 핀란드(Bluetech Finland Ltd.)는 최근 양사가 새로 설립될 지주회사인 ‘아크틱 마린 테크놀로지 그룹 오이(Arctic Marine Technology Group Oy)’의 산하로 편입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인수는 핀란드 고용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의 규제 승인과 기타 일반적인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하며, 거래는 오는 8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수 이후에도 두 회사는 기존 브랜드를 유지한 채 독립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아크틱 마린 테크놀로지 그룹은 핀란드 산업투자공사(Tesi)와 아커 아크틱의 기존 주주인 ABB가 공동 소유하게 된다. 핀란드 산업투자공사 산업투자 이사 유씨 하툴라(Jussi Hattula)는 “쇄빙선 설계 분야의 선두 기업 두 곳이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되면 핀란드의 쇄빙선 전문성과 해양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아커 아틱과 블루테크는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전례 없는 쇄빙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커 아틱의 최고경영자 미카 호빌라인넨(Mika Hovilainen)은 “블루테크를 동일한 지배 구조 안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은 아커 아크틱의 북미 시장 진출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호빌라인넨은 “아커 아틱은 쇄빙선 설계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통합을 통해 약 150명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초기 개념 설계부터 기본 설계, 생산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2024년 7월, 미국, 캐나다, 핀란드가 발표한 ‘국제 쇄빙선 협력 협정(ICE Pact)’과도 맞물린다. ICE Pact는 북극 및 극지 역량 강화를 위한 3국 간의 삼자 협정으로, 쇄빙선 공동 생산과 관련 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간 안보 및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며, 인력 개발을 포함한 산업 기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커 아크틱 측은 인수 가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일본, 연구선 그린란드에 파견 ... 중·러의 북극해 정보 독점 우려 대응조치 (2025. 5. 1.)

일본 정부는 북극해 연구를 위해 새로 건조한 쇄빙 연구선 ‘미라이II’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관측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국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이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해 탐사를 독점할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전 외무상은 5월 1일 그린란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라이II’의 운용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미라이II’는 일본의 연구선으로는 처음으로 쇄빙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원, 항로 탐사 등 북극해의 해빙 구역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미라이II’는 올해 3월 진수식을 진행했으며,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가 발주하고,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가 건조했다. 내부 공사 등을 거쳐 2026년 11월 완성을 목표로 하며, 2027년 여름부터 북극 항해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북극권 내 그린란드를 거점으로 연구선을 운용할 계획이다. 과학 조사에는 북극 지역의 원주민 및 지역 주민의 참여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가미카와 전 외무상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각료 및 덴마크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저서에서 북극 개발은 원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극 생태계 및 환경 변화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극권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아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항로로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경로에 비해 일본과 유럽 간 거리를 30~4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공급망 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빙하가 녹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의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그린란드를 비롯한 지역은 희토류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 김주형 jhkim7664@kmi.re.kr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57MN0V20C25A4000000/>

그림: 3월 진수식을 진행한 미라이II 호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57MN0V20C25A4000000/>

옵서버 국가 정책



북극 주변의 경제활동과 환경보호 문제 등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권 8개국이 참여하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일본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 중이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극이사회의 기능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북극해 연안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자원 개발 등을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극해에는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관여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북극해 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라 부르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북극해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담은 「북극정책백서」를 발표했으며, 자국 주도의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영유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으며, 반스 미 부통령은 올해 3월 그린란드를 방문했다. 반스 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자국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위기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러의 독점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자원과 항로를 강대국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열린 북극해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선 ‘미라이II’의 운용을 통해 우선 연구 목적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미라이II’는 기상, 해양, 해빙 등 다양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예정이며, 세계 각국의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가미카와 전 외무상은 외상 재직 이전부터 북극 정책에 꾸준히 관여해 왔으며, 현재는 북극해 개발 관련 의원연맹에도 소속되어 있다. 이 의원연맹의 요청을 받아 일본 정부는 2015년 자국의 「북극정책」을 수립했으며, 여기에는 ① 연구개발, ② 국제협력, ③ 지속가능한 이용 등 3대 분야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홋카이도대학의 오오니시 후지오(大西 富士夫) 특임 준교수는 “북극 연구 필드의 절반은 러시아에 속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불투명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일본은 북극 정책을 통해 유럽과 함께 미국을 다시 국제질서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극소식

얼어붙는 미국의 남극 영향력, 다가오는 지정학적 공백 (2025. 5.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극 과학 및 물류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미국의 남극에서 영향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극의 최대 연구·물류 기지인 맥머도(McMurdo) 기지와 남극 연구를 지원하는 미국 국립 과학 재단(NSF) 예산을 크게 줄였고, 추가 삭감도 예고된 상태이다. 이러한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은 남극에서 과학 활동과 외교적 리더십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도 맞물려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1958년 이후 남극에서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질서를 주도해 왔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 시절에는 1959년 남극조약 협상을 주도하며, 남극의 비군사화와 과학 연구 중심 지역으로의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AMLR)을 통해 남극해의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을 선도했고, 1991년 환경보호의정서를 채택하며 남극지역에서의 채광 금지와 '자연보호구역' 지정 등을 확립했다.

〈그림〉 맥머도 기지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theconversation.com/as-donald-trump-cuts-funding-to-antarctica-will-the-us-be-forced-off-the-icy-continent-254786>

그림: 남극에서 가장 큰 연구기지인 맥머도 (McMurdo)기지
(출처: The Conversation Newsletters/Wirestock Creators/Shutterstock)

남극소식

미국은 과학 연구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아문센-스콧(Amundsen-Scott) 기지와 팔머(Palmer) 기지, 그리고 남극 최대 연구기지인 맥머도 기지를 연중 가동하며, 기후변화·해양생태계 연구를 계속해 왔다. 특히, 크릴 어업 규제 모델을 개발해 펭귄·물개·고래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최대 해양보호구역(MPA)인 로스해(Ross Sea) 보호구역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삭감은 이 같은 미국의 역할에 큰 균열을 낼 것으로 보인다. 남극에서 미국의 물류량은 그간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의 보급과 연구 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예산 축소로 인해 이러한 국제 협력도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나사(NASA)와 해양대기청(NOAA)의 기후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위성 관측에 의존하는 호주와 다른 국가들의 해양·빙하·기후 연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남극에서의 활동을 비약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재 5개의 남극 연구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여섯 번째 여름 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쇄빙선 2척과 대형 크릴 트롤선을 운용하며, 남극 지역의 어업 및 자원 개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도 역시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환경보호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남극 주둔과 연구 활동이 축소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남극의 자원 개발과 환경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십 년간 지켜온 남극의 평화적·과학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으며, 광물 채굴 재개 논의나 크릴·어류의 과도한 어획 등 새로운 국제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미국의 남극 예산삭감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남극의 군사적 비군사화·환경보호·과학 협력 등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와 남극 해양생태계 보전에 중대한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극소식

극지연구소, 남극 심해에서 초대형 화살 벌레와 열수 광석 첫 채집 (2025. 5. 20.)

〈그림〉 남극 중앙해령에서 채집한 화살 벌레와 열수 광석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71757>

그림: 극지연구소 연구진이 수집한 10cm 길이의 화살벌레와 열수광산
(출처: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71757>)

극지연구소가 최근 남극 심해에서 전례 없는 초대형 화살벌레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열수 광석을 수집해 세계 최초로 외부에 공개했다. 극지연구소는 이 발견이 남극 생태계 연구 및 진화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박승현 빙하지권연구본부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올해 2월 아라온호를 통해 남극 중앙해령 수심 2,000m 열수분출구를 탐사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심해용 채집 장비로 길이 10cm에 달하는 대형 화살벌레(Chaetognatha)를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화살벌레는 0.5~3cm 크기의 플랑크톤으로 전 세계 해역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이번에 발견된 크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앞서 2017년에는 수중 카메라를 통해 남극 중앙해령에 대형 화살벌레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실물 채집과 외부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극소식

화살벌레는 약 10억 개의 염기쌍을 가진 유전체를 지니고 있어 어류와 비슷한 규모의 유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몸집이 작아 DNA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초대형 개체의 채집으로, 앞으로 남극 심해의 극한 환경에서 적응한 유전자 연구와 지구 생태계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극지연구소는 과거 북그린란드에서 30cm 크기의 원시 화살벌레 화석을 발견하며, 이 종이 초기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화살벌레가 시간이 흐르며 왜 소형화되는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연구진은 이번 탐사를 통해 열수 광석도 대량 수집했다. 채집된 열수광석은 총 102점으로, 무게는 350kg에 이른다. 열수 광석은 해저의 마그마 열에 의해 달궈진 해수가 주변 금속을 용해시킨 뒤 해저로 분출되어 형성된다. 이번에 수집된 광석은 황동석과 섬아연석으로 추정되며, 구리와 아연 등 유용 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극 중앙해령에서 열수 광석을 직접 채집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에는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남극 중앙해령 추가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미지의 남극 바다에서 얻은 이번 발견이 해양 생태계와 무척추동물의 진화·생리 연구에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채집 성과는 남극 심해 생물 및 자원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앞으로의 연구 및 국제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단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글 엄단비 dbu@kmi.re.kr

그린란드 외교·안보 전략,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지 말라”

2024년 2월, 그린란드 자치정부(날라케르수이스트, Naalakkersuisut)는 “그린란드 인 더 월드 –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지 말라(Greenland in the World –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제목의 외교·안보·국방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를 포괄하는 장기 계획으로, 그린란드 의회(이나치사르투트, Inatsisartut)에서 합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정책 로드맵을 넘어, 북극을 고향으로 삼는 독립 지향 민족의 외교적 선언이며, 그린란드가 덴마크 왕국의 일원으로 머무르면서도 독자적 외교·안보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실질적 의지를 담고 있다.

2011년 외교정책 전략과 다른 점

그린란드는 2011년에 “외교정책 전략 및 보고서(Udenrigspolitisk strategi og redegørelse 2011)”를 발표했다. 2024년 전략과 2011년 전략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안보와 국방 분야를 포함한 점이다. 2011년 전략이 순수한 외교 정책에 집중했다면, 2024년 전략에서는 안보 및 국방 분야가 초기 작성 단계부터 포함되었다. 이는 안보와 국방정책이 공식적으로는 덴마크의 전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가 이 분야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2024년 전략의 6가지 핵심 가치

2024년 그린란드 전략은 6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다. 첫째, 민주주의와 인권을 모든 대외관계의 핵심으로 설정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의 연대를 명확히 했다. 이는 그린란드가 권위주의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 체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그린란드와 북극을 저 긴장 지역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북극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평화로운 협력 공간으로 북극을 보존하려는 그린란드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은 그린란드의 평화 지향적 외교 철학을 드러낸다.

셋째, 그린란드 국민의 삶과 생계 개선을 강조했다. 이는 모든 외교정책과 국제 협력이 궁극적으로 5만 6,000 그린란드 국민의 실질적 이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여준다.

넷째, 모든 관계가 그린란드와 그린란드 국민이 독립적인 민족과 국가를 구성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그린란드가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이라는 현재 지위를 넘어 독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확립했음을 시사한다. 모든 외교적 상호작용에서 그린란드를 독립적 주체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다섯째, 모든 관계가 해결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이념적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실용적 문제 해결을 통한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그린란드가 추구하는 외교의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다른 북극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그린란드가 북극 원주민이자 북극 거주민으로서 알래스카 이누이트, 캐나다 북부 원주민, 시베리아 원주민 등과의 연대를 통해 북극 거버넌스에서 원주민의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 중심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 기반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극이사회에서의 리더십 강화

이 전략에서 그린란드는 북극이사회에서 덴마크 왕국 대표단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전략은 "우리가 왕국의 북극 부분이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덴마크 왕국의 북극이사회 대표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린란드가 북극에 대한 덴마크 왕국의 지리적 근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 관련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발언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극이사회 의장직에 대해서도 "북극에 의해, 북극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덴마크가 아닌 그린란드가 의장국 역할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는 북극이사회를 북극 주민들을 더 포함하고 주민들과 더 관련성이 높은 기구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북극 원주민 대표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십, 문화 교류, 식량 안보 협력, 북극 원주민 간 연결성 강화 등 새로운 활동 분야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와 해양 정책 검토

그린란드는 파리기후협약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그린란드

의 경제 발전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후 정책으로 그린란드는 영해 확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3해리인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한 내부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광물 공급을 통해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린란드는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자국 내 과학 연구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주권을 향한 무역 전략

이 전략은 그린란드 외교정책에서 무역정책이 필수적 구성요소임을 강조했다. 그린란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립 경제 확보에 필수적인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무역 파트너들은 해양 포유류의 지속가능한 포획에 뿌리를 둔 그린란드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의 국제무역정책 목표는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수익 창출을 통해 자립 경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통해 그린란드의 이익과 공급망 안전을 보장(supply chain security)하여 국가의 회복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의약품, 연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은 그린란드가 오랫동안 서쪽과 남서쪽의 국가들과 많이 무역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북미 시장에 주목하였다. 불안정하고 예측불허한 세계에서 책임 있는 무역 파트너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수출 전략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제품 범위 확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제시했다. 수십 년간 어류와 해산물 제품을 판매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종과 가공된 고부가가치 상품군 확대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이 전략은 방하수와 얼음 수출 기회를 언급하며, 그린란드 기업들이 이러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물 판매도 그린란드의 대외 수출 증대를 위해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유전자원 수출 뿐만 아니라 관광업도 국가 수익 창출을 위해 촉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성(Connectivity) 강화

이 전략은 ‘연결성’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어, 이웃 국가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과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수년간 그린란드가 캐나다와 미국에 직항 항공편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북미지역에 대한 항공 노선 개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북서항로를 포함한 북방 해운 항로를 통한 새로운 해상경로의 형성을

주시하고, 그린란드와 인프라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전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린란드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극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폴라 코드(Polar Code) 이행을 위한 북극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활동을 지지하였다.

통신과 데이터 연결성도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린란드는 국가 안팎의 데이터와 통신 회선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와 통신 중복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과 위성을 통한 연결성 확보는 그린란드에 필수적이며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소유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몇 년간 수익 창출 기회의 증가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와의 교류

이 전략은 그린란드가 특히 중국,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까지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존재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21년 말 북경에 그린란드 대표부를 설립했으며, 이 대표부는 무역, 교육, 연구, 문화 관계의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일본은 그린란드 수산물 수출에 특히 중요한 시장임을 밝히며, 어업 분야의 주요 경쟁국들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무역협정과 기타 주도권을 통해 상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기회가 존재하며, 북극 국가로서 그린란드는 평화와 저 긴장을 유지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그린란드에게 영감이 되는 사례로 작용했다. 그린란드 방문 여건 개선을 위해 관광과 문화에 주목해야 하며, 문화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가 관광 전략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극 다자 협력 및 유엔(UN)

이 전략은 그린란드가 북극 관련 모든 다자 포럼에서 의사결정 테이블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북극이사회 외에도 다양한 북극 포럼에서 협력과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린란드는 2008년 일루리사트 선언(Ilulissat Declaration) 서명국으로, 중앙 북극해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의 2018년 일루

리사트 서명국으로 참여하였음을 명시했다.

※ 일루리사트 선언 : 2008년 5월, 북극국가인 덴마크,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5개국이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북극 문제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열어 유엔 해양법협약과 기존 국제 협약을 통해 북극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한 선언

그린란드는 국제법을 준수하며, 인권, 원주민 권리, 양성평등과 여성권, 지속가능발전 목표, 해양법, 탈식민화, 민주주의 민족자결권의 핵심 원칙을 지지하고 실천함을 강조했다. 전략 기간 내에 그린란드는 유엔의 뉴욕 본부에 그린란드 대표부를 설립하고 제네바에 상주 직원을 파견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린란드 안보 및 국방 정책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통해 나토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서방 안보체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NATO 상설대표부(DANATO)에 외교관을 파견하여, 북극 및 그린란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NATO 정책 결정에 해당 지역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그린란드는 미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며, 국방 협력을 유지하고 필요시 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투피크(Pituffik) 우주기지와의 협력, 미 국방부와와의 대화 확대, 기지 관련 정책 결정에 그린란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화정책과 관련하여, 그린란드는 북극을 전 세계에서 반복된 전쟁의 파괴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겪지 않은 평화로운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관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기구로, 원주민 대표들이 발언권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인정(recognition)’, ‘대화(dialogue)’, ‘이해(understanding)’의 필요성을 구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린란드는 북극에서의 평화를 주요 의제로 삼는 ‘평화센터(Peace Center)’를 그린란드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기부자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평화센터는 지식공유와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장이자, 국제 협력을 통한 갈등 예방과 저긴장 유지에 기여하는 실질적 플랫폼이 될 것이다.

시사점

2024년 그린란드 전략은 그린란드가 국제 사회의 의사결정 테이블에서 자리를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전략의 실행은 그린란드의 선출직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 특히 북극 및 그린란드 고유의 이해

와 관점을 외교적 입장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전략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그린란드의 표현"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그린란드가 2024년 전략을 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2025년 5월, 북극이사회 의장국이 노르웨이에서 덴마크로 이양되면서, 의장직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외무장관 비비안 모츠펠트(Vivian Motzfeldt)에게 맡겨졌다. 북극 거버넌스의 협의체에서 그린란드가 전면에 등장한 이 사례로 우리는 향후 북극 지역에서 자치정부 및 원주민 주체의 발언권이 더 확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이후, 그린란드와 덴마크 사이의 주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덴마크가 일정 수준에서 그린란드의 외교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정치적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그린란드가 2024년 발표한 『그린란드 인 더 월드 -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지 말라』 전략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해당 전략은 단지 외교·안보 로드맵에 머무르지 않고, 북극 주권 주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선언이자 실행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 전략은 그린란드에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북극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통해 그린란드는 더 이상 '덴마크의 대리인'이 아닌, 북극 내 '정책 주체'로서의 자리를 공식화했다. 둘째,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실제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다자 협의체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다.

셋째, 북극 원주민 주체성 강화와 다자 협력 기반 북극 외교라는 전략의 핵심 방향이 의장국 활동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확보했다.

넷째, 전략은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슬로건 아래, 덴마크와의 관계 재조정, 자원외교, 안보 역량 구축, 평화 중심 외교 등 다층적 외교 프레임을 구조화한 결과물이자, 향후 독립을 향한 정치적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지위를 계기로, 그린란드의 실질적 외교적 위상이 가시화된 지금, 『그린란드 전략 2024~2033』은 더이상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실행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과 사람

그위친 원주민에 대한 이해: 역사, 문화, 거버넌스

글 김주형 jhkim7664@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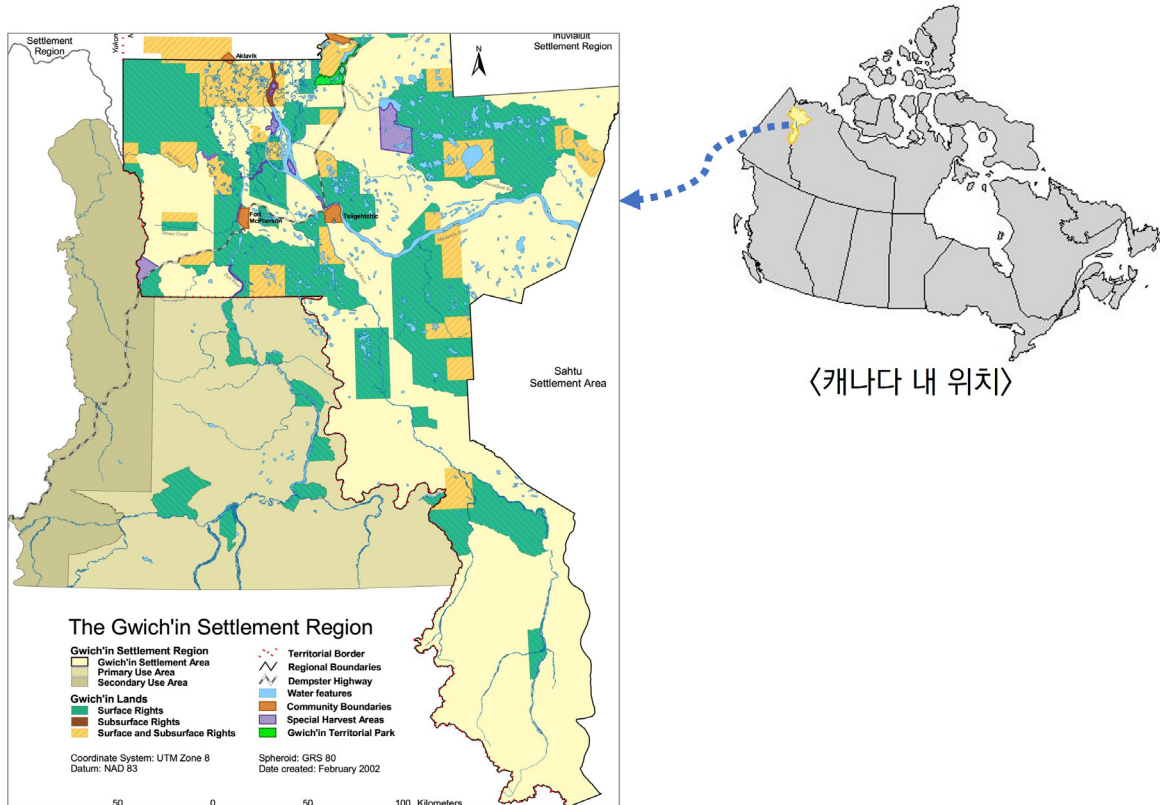
■ 들어가며

- 북극 원주민은 북극 지역의 문화, 사회, 환경에 대한 전통 지식을 이어온 주요한 주체로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핵심 파트너로 인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극 원주민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내에서 ‘상시참여그룹(Permanent Participants)’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북극 거버넌스 체계에서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6개 북극 원주민 상시참여그룹 중 하나인 그위친 이사회(Gwich'in Council International)로 활동하는 그위친(Gwich'in)의 역사, 문화, 정치, 그리고 북극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등을 소개한다.

■ 그위친의 문화와 정치

- 그위친 족은 북미 대륙에서 가장 북쪽에 거주하는 원주민 중 하나로 캐나다 북서부와 미국 알래스카 북동부지역에서 전통 문화를 계승하며 살아가고 있다. 북방 수림 지대의 북서단에 정착해 있는 이들은, 북극해에 인접한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이누이트를 제외하면 가장 북쪽에 사는 토착민이다. “Gwich'in”은 “그 마을 사람들” 또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 그위친 족은 아사바스칸(Athapaskan) 계열의 원주민으로, Slavey(슬레이비), Dogrib(도그립), Han(한), Tutchone(터초니) 등과 민족적 뿌리를 공유하지만, 고유의 언어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언어는 북방 아사바스칸(Northern Athabaskan) 언어군에 속하는 그위친어를 쓴다. 인구는 캐나다와 미국 포함하여 약 9,000명이다.
- 유럽계 정착민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위친 족은 알래스카 내륙에서 캐나다 유콘을 거쳐 맥켄지 계곡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9개 밴드(band)로 나뉘어 생활했다. 오늘날에도 유콘 및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친족 공동체와 밀접한 문화적·혈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지역을 합쳐 총 15개 지역사회에서 6,000명이 넘는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포트 맥퍼슨(Fort McPherson), 치이게치크(Tsiigehtchic), 애클라빅(Aklavik), 이누빅(Inuvik) 등 네 개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3,440명이다.

〈그림 1〉 캐나다 그위친 정착 지역



〈캐나다 내 위치〉

자료: <https://www.gwichinplanning.nt.ca/theRegion/gwichin.html>

- 전통적으로 그위친의 영토는 남쪽의 필강(Peel River)과 북극 레드강(Arctic Red River)의 산악 발원지에서 시작해 북쪽의 매켄지 삼각주 지역, 동쪽의 앤더슨강(Anderson River), 서쪽의 리처드슨 산맥(Richardson Mountains)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다.
- 오늘날에도 많은 그위친 족 가정은 여름과 겨울철 캠프를 유지하며 사냥과 채집을 병행하고 있다. 카리부, 무스, 흰살 생선 등은 이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사냥·어로·뎃 울무(trapping) 등은 생계 수단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 그위친은 북아메리카 북서부의 극지 및 아한대 생태계에 적응한 사냥·수렵 중심의 생활을 해온 공동체로, 의복은 단순한 생활 필수품을 넘어 생존 기술이자 문화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기능했다. 이들은 혹한의 기후에 대응하면서도 공동체 내 정체성, 기술력, 미적 감각을 반영한 독자적인 의복 문화를 발전시켰다. 즉, 혹한의 기후에 대응하면서도 공동체 내 정체성, 계급, 기술, 미적 감각을 반영한 의복 문화를 발전했다. 그위친의 전통 의복은 주로 흰색 카리부(순록) 가죽으로 제작되었으며, 호저의 가시(porcupine quills)나 구슬(beads) 등으로 장식되었다. 하체를 보호하는 레깅스(leggings)와 안쪽에

모피를 덧댄 장갑(mittens)도 흔히 사용되었다. 장식 요소로는 호저 가시 자수(quillwork)와 구슬 공예(beadwork)가 대표적이며, 이는 주로 여성들의 수작업으로 공동체에서 제작되었다.

〈그림 2〉 그위친 전통 복식



<여름 복식>



<어린이용 겨울 복식>

자료: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726636>
<https://kaysiemccumber.wordpress.com/2016/11/10/athabaskan-beadwork-week-9/>

■ 정치 조직

- 그위친 자치정부(Gwich'in Government)는 캐나다와 미국의 북극권 지역에 걸쳐 분포한 그위친(Gwich'in) 원주민 공동체의 자치적 통치 체계로, 주로 토지 권리, 자원 관리, 문화 보전, 자치 행정 등을 담당한다. 그위친 자치정부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정체성을 인정받았으며, 오늘날에는 자치 현장 기반의 정부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 캐나다에 거주하는 그위친은 캐나다 정부, 노스웨스트 준주 정부와 1992년 체결한 「그위친 포괄 토지 청구 협정(Gwich'in Comprehensive Land Claim Agreement), GCLCA」에 따라 약 2만 2,422km²의 토지 소유권과 15년간 총 1억 4,100만 캐나다 달러의 세금 면제 자본 이전, 그리고 맥켄지 계곡에서의 자원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를 연간 분배받는다. 따라서 캐나다 북서부 원주민의 권리 회복과 지역 자치를 위한 중요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그러나 「자치 정부 협정(Self-Government Agreement)」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현재 그위친 부족 위원회(Gwich'in Tribal Council, GTC)는 캐나다 정부 및 노스웨스트 준주 정부와 함께 자치 정부 설립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협정에는 그위친의 고유한 자치권을 구현하고, 그위친 정부 구조와 법률 제정 권한이 명시될 예정이다.
- GTC는 1992년 GCLCA 체결을 기반으로 설립된 그위친 지역사회의 대표 기구로, 자치정부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실상 그위친 자치 정부의 핵심 기반이다. GTC의 조직 체계는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각 지역 대표로 구성되며, 정책 및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이사회, GTC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집행부, 각 지역 사회별 사업 집행 및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조직(DGOs), 경제 개발 및 수익 사업 운영 주체 역할을 수행하는 그위친 개발 공사, GCLCA에 의거한 토지 청구권 보상금을 영구 자산화하여 운용하며, 공동체에 배당 재원을 제공하는 재정 신탁 기구 정착기금법인(Gwich'in Settlement Corporation(GSC)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미국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그위친은 1971년에 제정된 「알래스카 원주민 청구권 합의법(Alaska Native Claims Settlement Act, ANCSA)」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었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토지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역(Regional) 및 마을(Village) 단위의 자치 법인(Native Corporations)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법인에게 토지 소유권(약 18만km²)과 9억 6,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 ANCSA에서 도연 법인(Doyon Limited)이라는 내륙지역 원주민 지역법인(Regional Corporation)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며, 아틱 빌리지(Arctic Village)와 베네티(Venetie)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독립된 마을 기업(Village Corporations)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틱 빌리지와 베네티는 일반적인 ANCSA 체계와 달리 공동체적 토지 소유권(tribal land ownership)을 유지하는 “베네티 인디언 보호(Venetie Indian Reserve) 판례 (1998)”로도 주목받았다.
- 이러한 법적·조직적 체계 아래에서 알래스카 그위친 공동체는 토지관리, 문화유산 보존, 경제 개발, 환경 보호, 전통 사냥권리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자치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어가고 있다.

■ 그위친위원회(Gwich'in Council International, GCI)와 북극 활동 현황

- 그위친위원회는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에 거주하는 약 9,000명의 그위친 원주민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GCI는 특히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문제에 대한 그위친 국민의 목소리를 증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림 3〉 GCI 로고



자료: <https://gwichincouncil.com/>

- GCI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대표 기구로 구성된 회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위친 부족 위원회(Gwich'in Tribal Council, GTC)는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그위친 토지 청구 합의법(Gwich'in Land Claims Settlement Act)」의 수혜자들을 대표한다. 번툰 그위친 퍼스트 네이션(Vuntut Gwich'in First Nation, VGFN)은 유콘 준주의 올드 크로우(Old Crow)에 위치한 자치정부형 원주민 공동체이다. 아사바스칸 부족 정부 협의회(Council of Athabaskan Tribal Governments, CATG)는 미국 알래스카의 여덟 개 그위친 공동체(포트 유콘, 베네티, 아틱 빌리지, 찰카이치식, 버치 크릭, 서클, 캐니언 빌리지, 비버)를 대표한다.
- GCI는 캐나다 옐로나이프(Yellowknife)에 상근 직원 1명을 두고 있으며, 조직 운영은 캐나다와 알래스카에서 각각 4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담당한다. 이사회는 양측에서 각각 공동의장을 선임하여 공동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 GCI는 북극권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산불·순록 이동 경로 변동 등의 문제에 대해 북극평의회 산하 워킹그룹과 협력 활동을 지속 중이다. 특히 알래스카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ANWR) 해안 평야는 그위친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신성한 장소”(Iizhik Gwats'an Gwandaii Goodlit)라고 불리는 영적·문화적 성소이자, 포큐파인 순록(Porcupine caribou) 무리의 번식지인 동시에 사냥 문화의 핵심 지역이다. GCI는 이 지역 내 석유 및 가스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국제적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1기) 당시 추진된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국제 비정부기구(NGO) 및 원주민 연합체와의 연대를 통해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4〉 포큐파인 순록(Porcupine caribou)



자료: <https://deeply.thenewhumanitarian.org/arctic/articles/2017/06/09/alaskas-porcupine-caribou-herd-and-the-people-it-helps-sustain>

- 최근 북극이사회는 청년 리더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GCI는 청년 대표단의 국제 포럼 참여를 통해 차세대 전통 지식 보유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통 의복 제작, 언어 보존, 순록 추적 기술 등의 분야에서 차세대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공동체 주도형 워크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출처>

<https://arctic-council.org/about/permanent-participants/gci/>
<https://gwichincouncil.com/gwichin>
<https://www.gwichinplanning.nt.ca/theRegion.html>
<https://gwichin.ca/>
<https://www.gwichin.ca/about-the-gwichin>
<https://www.gwichintribal.ca/gwichin-government.html>
<https://www.gwichin.ca/clothing>
<https://www.eia.gov.nt.ca/en/priorities/concluding-and-implementing-land-and-resources-and-self-government-agreements/gwichin>
<https://www.gwichintribal.ca/about.html>
<https://www.gwichincollaborative.ca/gwich-in-government/what-is>
<https://www.doyon.com/>
<https://ancsaregional.com/about-ancsa/>
<https://www.oyez.org/cases/1997/96-1577>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no-21-arctic-council-and-crucial-partnership-between-indigenous-peoples-and-states-arctic>
<https://www.vgfn.ca/news-releases-and-statements/vuntut-gwichin-first-nation-condemns-trump-administrations-continued-push-for-dri>
[lling-in-the-coastal-plain-of-the-arctic-national-wildlife-refuge](https://arctic-council.org/ru/news/engagement-involvement-and-insights-of-gwichin-youth/)
<https://arctic-council.org/ru/news/engagement-involvement-and-insights-of-gwichin-youth/>
<https://deeply.thenewhumanitarian.org/arctic/articles/2017/06/09/alaskas-porcupine-caribou-herd-and-the-people-it-helps-sustain>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726636>
<https://kaysiemccumber.wordpress.com/2016/11/10/athabaskan-beadwork-week-9/>

극지 행사 소식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

친환경 북극항로 거점으로서의 도약, 부산항의 기회와 과제

친환경 북극항로 거점으로서의 도약,
부산항의 기회와 과제



사전등록 바로가기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

2025. 6. 10. TUE 14:00 - 17:00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 컨퍼런스홀 C

시간	내용
14:00 - 14:15	15' < 개회식 > • 개회사 송 상 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 인사말씀 조 정 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14:15 - 14:50	35' < 기조 발표 > 북극항로 친환경 녹색 활용의 조건 신 형 철 극지연구소(KOPRI) 소장
14:50 - 15:10	20' 커피 브레이크
15:10 - 15:50	40' < 주제 발표 > 친환경 북극항로 허브항으로서 부산항의 역할 발표 ① 김 엄 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실장 발표 ② 이 명 호 폴라리스위핑 부장
15:50 - 16:40	50' < 지정 토론 > 친환경 북극항로 거점으로서의 도약, 부산항의 기회와 과제 좌장 홍 기 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전문가 패널 과학연구 정 지 훈 극지연구소(KoARC) 사무국장 조선 정 성 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박사 최 중 효 한화오션 책임연구원 기자재 강 동 혁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본부장 학계 홍 성 원 영산대학교 교수 정책연구 김 근 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
16:40 - 17:00	20' Q&A

 부산항만공사
BPA | BUSAN PORT AUTHORIT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 KOREA MARITIME INSTITUTE
  극지연구소
KOPRI |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 |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 COASTAL TECHNOLOGY

극지e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
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극지e야기 KPoPS 회의, 조약, 동향 등을 검색해보세요 홈 | 사이트맵 | English

소개 극지 정책 극지 협력 극지 동향 극지 소식

IBRV ARAON

쇄빙선 아라온호

연구와 보급지원 항해로 남북극을 두바다
남/북극지방에서 연구·보급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중임

쇄빙선 아라온호 둘러보기

공지사항 + 국가 정책 및 제도 + SNS소식

공지	2019 우수 미래 극지연구자 국외 표	2019-01-18	비북극	[중국] 중국 남극과학탐사대 눈보라	2019-01-29
공지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	2018-11-28	비북극	[일본] 미츠비시 산업, 러시아 노바텍	2019-01-29
공지	2017년 발간 북극이사회 자료 국문	2018-10-05	북극	[미국] 미국, ANWR 개발 관련 환경	2019-01-28
공지	2018년도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	2018-09-20	비북극	[중국] <중국북극발전 및 안보전략	2019-01-28
공지	2018년 극지전문인력양성(북극) 프	2018-09-04	북극	[러시아] 자원환경부, 고난이도-고	2019-01-28

극지연구센터 2019-01-31
대외경제은행, 가스운반선 건조에 185억
두블 대출 예정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는 최근 열렸던 공개업 아시아에서 사
베타(Sabeta) 항 천연가스 사업 발전의 일
원인 신형 북극해 천연가스 왕복운반선 건
조에 대외경제은행(MEB)이 185억 루블 규
모의 대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외역는 자원개발에 따른 원료 생산량 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극 및 남극과 관련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MI 홈페이지-정기간행물-
극지해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정보 동향정보 세미나 KMI소식 KMI소개 고객서비스 정보공개 구독 신청 | ENGLISH

동향정보 극지해소식

* 구독 신청

발간 간행물

- KMI 국제물류워클리
- KMI 주간 해운시장포커스
- KMI 주간 주요수산물 수급리포트
-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 아시아선리포트
- 극지해소식
- KMI 북방물류리포트
- KMI 동향분석
- 정밀과 산업
- KMI 항만 서비스 지표
- 국제해양장세리포트
- 해양수산업 기업경가실시제수
- KMI 인포그래픽
-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 KMI 해운시황보고서
- Position Paper

* 중간 간행물

극지해소식

동향정보 발간 간행물 극지해소식

극지 동향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향정보지입니다.

번호	호수	발행일	조회 / 다운	파일
99	제134호	2024-04-30	72 (56)	
98	제133호	2024-03-29	116 (78)	
97	제132호	2024-02-29	105 (105)	
96	제131호	2024-01-31	92 (61)	